

사설

IMF시대의 방생

올해 안으로 실직자가 120만명을 돌파할 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직자 1인당 부양가족을 1.7인으로 잡으면 320여만 국민이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예상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서너집 건너 한집씩은 실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다.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이고, 그러하기에 고통분담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선은 참고 견디다가야 한다고 서로 다짐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실직을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실직을 당한 이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나라 경제 성장의 최일선에서 피땀 흘려서 얻어낸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이들에게 가혹한 고통분담의 논리가 쉽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한 고통분담이라면 공업(共業)의 사상에 비추어, 우리 공업의 희생양이 되어있는 그들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나눠 져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이 자신의 업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보다는, 우리의 업을 그들이 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 불교계의 일각에서도 '실직자 위안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실직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절을 내일의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로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무척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직자들에게 단지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소극적인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경제적 현실적 구제의 길을 여는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원공동체나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에 실직자들을 봉사요원으로 활용하면서,

기본적인 생계의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화합대중의 공동체인 승가의 이념을 확대하여, 불자들 개개인의 조그만 힘을 모아 바람에 물린 실직자들과 그 가족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신적인 위안을 위한 상담기구나 실질적인 재취업을 앞선하는 등의 기구를 교계의 힘을 모아 확대 설치하여, 실직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움직임을 하루 빨리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직자들이 가족들에게서 조차 소외되어, 가족공동체의 파괴까지 이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막는 구체적인 강령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하고 각 사찰 등의 법회를 통해 널리 퍼 나가야 한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들의 잘못 보다는 위정자와 경제 상층부의 지도력 부족 때문임을 인식시켜, 그들이 패배감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한국 불교가 '보살불교'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는 실직자를 남편으로 둔 모든 '청신녀'들에게 그들 남편을 더욱 받들고 힘을 북돋우어 내일의 도약을 이룩하게 하는 가르침을 펼 좋은 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아니한가?

실직의 고통과 실직에 대한 불안으로 점박이의 문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바로 이런 때일수록 종교의 큰 힘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마침 11일은 정월보름, 방생을 많이 하는 때이다. 기존에 불교계에서 많이 해 왔던 물고기방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방생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보살 52계위' 수행정례화

불자들은 왜 수행해야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힌 지침서가 나온다.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은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문'(이하 52계위)을 23일 폐내 전국 사찰에 배포, 신도포살법회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52계위'는 불자들이 처음 보리심을 일으켜서부터 수행의 공덕을 쌓아 깨달음을 이루기까지의 단계인 '보살계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포살법회에서 불자들의 일상생활과 수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서원을 다지도록 포살참회문으로 꾸며 자연스럽게 수행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도록 했다.

또 '범망경'을 위주로 하는 지금까지의 포살이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달리 52

조계종 포교원 '포살참회문'으로 제정 배포 화엄 이타행 강조...신도 일상생활 수행 연계

위 수행포살법은 대승불교의 적극적인 이타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살계위란(화엄경)에서 52위설로 그 의미가 정해진 것으로 초발심부터 십심(十信),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에 이르기까지의 계위를 말한다. 포교연구실은 화엄경을 비롯 십지경 보살열락본업경 정찰선악업보경 등 각종 경전의 근거를 일일이 찾아 각 계위가 뜻하는 내용과 현대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52계위 14면> 이에따라 신도포살법회의 정착과 기복중심의 한국불교 신

행풍토를 '부처되기'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 사무국장 범성스님은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종단내외의 사정으로 체계적인 대승보살 수행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승보살도의 사상과 실천만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적 종교적 신념이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남북 불교지도자 5월쯤 '상봉' 평법협-조불련대표 26일 북경서 일정 논의

91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올 5월경 미국 LA에서 열릴 전망이다.

조국통일평화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는 26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접촉을 갖고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합동기원법회'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법협은 대북접촉 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베이징 회담에는 법타스님과 지현정사를 비롯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월10일 박태호 위원장이 법타스님에게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 논의를 위해 북경에서 만날 것을 제의해

음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이번회담은 91년 미국 LA관음사에서 남북불교지도자가 함께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를 개최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남북불교지도자 접촉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는 91년 10월29일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불교지도자가 미국에서 만나 4박5일간 남북 불교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됐으나 당시 회의가 서로의 의견차이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단절됐다. 따라서 오는 5월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가 성사될 경우 남북불교교류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0년 문화예산 GNP대비 '1%'

김대중당선자 밝혀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1월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화예산에 대해 1백여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2000년까지 문화예산을 국민총생산(GNP)대비 1%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김당선자는 "차기정부는 북한과의 반대가 없는 한 남북간의 교류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국민이나 정부가 격정하는 교류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법도량 7곳 순회법회 연다

조계종 전법의해조직위 27일 봉은사서 시작

전법도량 현관식 및 순회법회가 27일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를 비롯 전법거점도량으로 지정돼 개원하는 목포불교대학 등 6월 7일까지 전국 7개 전법도량에서 실시된다.

전법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 집행위원장 성타)는 5일 전법도량 순회법회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순회법회 기획안에 따르면, 현관식과 함께 대법회를 유도하여 전법분위기를 상승시키기 위해 종단의 최고수장인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

교원장이 동시에 참석하여 전법이 종단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부각시켜 전법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또 전법도량이 속한 해당교구 본·말사스님 간담회와 지역기관장 신명단제장 총합학 교장 초청간담회, 지역불교계 교장 초청간담회, 지역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방문도 함께 진행해 사찰의 포교활동을 격려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적극 표명키로 했다. 집행위원회는 또 올해 거점

1곳, 시범 4곳 등 신규 전법도량 5곳을 지정하고 순회법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회법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법도량, 일시, 법사) △봉은사, 27일 11시30분, 성타 포교원장 △거창포교당(주지 주연), 3월 7~8일, 암도 교육원장 △목포불교대학(화장 지승), 3월 21~22일, 이하 미정 △화성 신홍사(주지 성일), 4월 5일 △경북상주 남장사(주지 성운), 4월 24~25일 △광주 향림사(주지 천운), 5월 9~10일 △전북불교회관(관장 희일), 6월 6~7일.



△한국의 대인지뢰 협약가임을 촉구하는 윌리엄스초청 간담회가 4일 열렸다.

"대인지뢰협약 한국가입" 촉구

노벨평화상 윌리엄스 교계초청 간담회서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48세 여·국제대인지뢰대책회의 대표) 씨 일행은 4일 서울 한일관에서 열린 불교계 인사 초청간담회에 참석, "한국이 대인지뢰협약 가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나서도록 불교계가 힘을줄 것"을 당부했다.

윌리엄스씨는 한국 정부가 협약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가 대인지뢰 예외지역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운동이 한반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정부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능관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법문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법현스님(前 태고종 총무부장) 해진스님(나눔의집 원장)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윌리엄스씨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미 코련 국방장관의 한반도의 무기구매 요구와 대인지뢰 지속의견 피력은 미국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태어나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91년부터 대인지뢰금지운동을 국제적으로 펼쳐왔으며 대인지뢰금지 국제협약을 이끌어낸 공로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현대만평 737-8881

현대만평

"어렵지만 힘을 내시다"

금강불교대학 2542(1998)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교는 불교적 신심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천태종 중립교육기관으로서 불기 2542(1998)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구분 및 인원
 - 서울·부산 1) 불교학과 120명 2) 교법사과정 : 50명
- 교육년 한
 - 가. 불교학과 : 2년 나. 교법사과정 : 1년(야간)
- 교수진 소개
 - 이재창교수 김영태교수 원의법교수 리영자교수 권기종교수 서울길교수 조용길교수 김상현교수 정병조교수 김용환교수 강동균교수 박만연교수 최봉수교수 심재열교수 이만교수 이봉춘교수 권탄준교수 박경준교수 김용표교수 권오민교수 이기선교수 허경우교수 지창규교수 장희욱교수 차차석교수 정승석교수
- 전형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
- 원서 접수
 - 1) 기 간 : 불기 2541(1997)년 12월 23일(화)~불기 2542(1998)년 2월 10일(화) 오후 5시까지
 - 2) 접수처 : ① 서울 : 교무과(서울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內) ② 부산 : 교무과(부산 부산진구 조음동 산131번지 삼광사 內)
- 특 전
 - 가. 재학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면제
 - 나. 본 종단 신도가 아니라도 불교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교법사과정 수료후 본종단 교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02) 576-6401~2 또는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051) 808-0730, 808-711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장 훌륭한 교수진, 가장 알찬교육과정 운영, 가장 철저한 교육

불기 2541년 12월

대한불교천태종 금강불교 대학장